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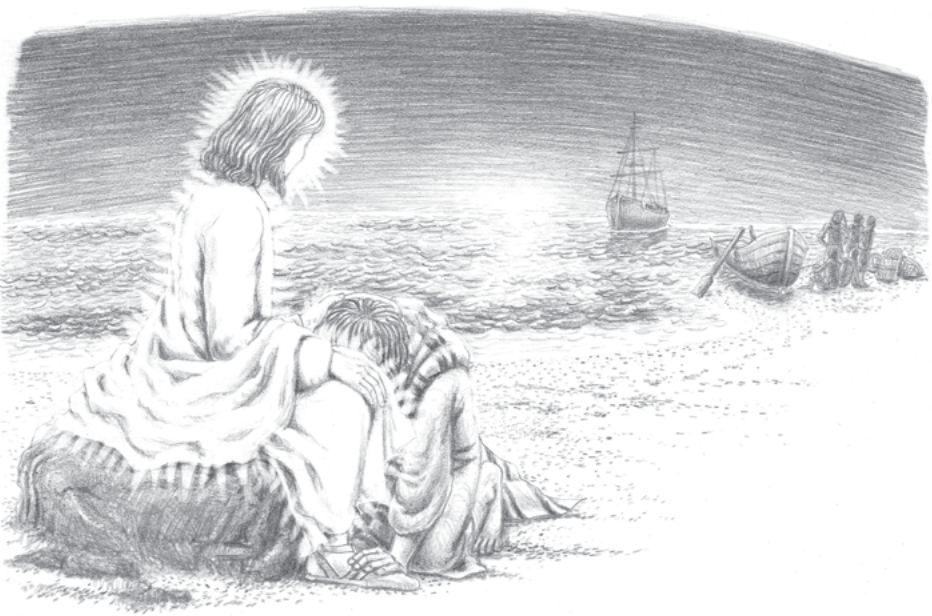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요 18:15~27, 요 21장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 68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1. 우리의 육신적인 결심과 노력,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압니다.
2. 내가 넘어진 그 곳에서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압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올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눅 22:61~62)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5)



을 이해하기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벳새다 지역의 어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시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용감히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그를 알아본 하속들과 계집종을 두려워하여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여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위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므로써 그가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아셨지만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 21:17)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Jn 21:17)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내용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요 18:17, 25, 27).

②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요 21:15~17)?

③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성경 속 인물을 찾아보고, 그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④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 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고 반성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행 13:13

의

고전 15:58

화

고전 16:13

↑

고전 16:15

↑

고전 16:18

↑

골 4:10

↑

몬 1:11~12



줄타기와 꼬마

작은 마을의 장터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곡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망대에 가느다란 줄을 팽팽히 묶어 놓고, 한 남자가 물구나무를 선 채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곡예사가 인사에 답한 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로 저 끝까지 건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웃으며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저와 함께 이 자전거를 타 보시겠어요? 자, 어디 자. 네, 거기, 그분.”

지목을 당한 그 신사는 얼굴이 굳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전에 곡예사를 믿는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번쩍 손을 들며 “제가 타겠어요”하고 외치는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천천히 줄을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년이 땅에 내려오자 사람들은 그 용감한 소년을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애야, 그 위에서 무섭지 않던? 넌 참 대단하구나!” 꼬마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은 바로 제 아빠거든요.”



질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죄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만 굳게 가지고 있으면 술이나 담배에 관한 문제에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인 만큼 피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관련된 것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식에 어긋난다면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담배나 술을 사는데 드는 물질을 절약해서 더 유의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 23:31)

구원받기 전에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는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시작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용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 식물(食物)로 사용하는 것이며 기분을 위해,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우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딤후 5:23)

하지만 이 말씀을 핑계로 술을 마신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비록 담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배 역시 피우면 안 됩니다.